# 제2절 신라말 고려초 순천의 지방세력*

신라 말 고려 초에 대두한 지방세력을 호족이라고 부른다. 호족이라는 용어는 대부분의 한국사 개설서에서, 그리고 이 시기를 연구한 대부분의 논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호족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호족은 신라 말 고려 초에 지방에서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면서 일정한 지역에 대한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지배권을 행사하던 독자적인 지방세력으로서, 신라 말 고려 초의 사회변동을 주도한 세력이다. 이와 같은 호족의 개념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사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호족의 성격과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한층 더 명확해졌다. 신호철(申虎澈)은 호족의 일반적인 성격을 이끌어내는 데에 "신라의 골품체제나 왕경(王京) 중심의 사회체제에 반발하고 지방사회를 중심으로 하였다는 데서 지방성 혹은 재지성(在地性)이, 군사적·경제적·사회적으로 거의 독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독자성 혹은 독립성이, 일정 영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영역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그는 호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신라 말기에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등장하였고, 그 세력기반은 중앙이 아닌 지방사회에 있으며, 일정한 영역에 대해 어느 정도 독자적인 지배권(군사적·경제적·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한 세력이다. 그리고 신라의 골품체제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사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을 가진, 특히 신라 골품귀족이나 고려 문벌귀족과 대비되는 신라 말 고려 초기의 정치적 지배세력"이다. 이러한 호족에 대한 개념규정은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견해로 볼 수 있다.

한편 사료에는 지방세력을 장군·성주·성수·수·적수·적·웅호·호걸·호족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표현된 지방세력이 그동안의 연구에서 호족의 사례로 제시되었다는 것은 쉽게 인정되는 사실이다. 또한 적(賊)으로 표현된 지방세력 중에서 적고적(赤袴賊) 등과 같은 초적(草賊)이나 군도(群盜)를 호족에서 제외한 것도 그동안의 연구경향이었다. 왜냐하면 호족의 성격으로 지방성과 재지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군·성주·성수·수·적수·적·웅호·호걸·호족 등으로 표현된 세력 중에서 지방에 재지적 기반이 없는 초적이나 군도 등을 제외한 지방세력을 호족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이상에서 호족의 개념이 한국사학계에서 어떻게 정의되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하여 필자는 호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호족은 신라 말에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등장하여 지방사회에서 일정한 지역에 대한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지배권을 행사하던 독자적인 지방세력으로서, 신라 말 고려 초의 사회변동을 주도한 지배세력이었다. 아울러 호족은 장군·성주·성수·수·적수·적·웅호·호걸·호족 등으로 표현된 세력 중에서 지방에 재지적 기반이 없는 초적이나 군도 등을 제외한 지방세력이었다.

---

* 제2절은 정청주(鄭淸柱) 집필임.

## 1. 신라말 호족의 대두

신라 말에 대두하는 호족은 그 출신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그 유형은 대체로 낙향귀족(落鄕貴族) 출신의 호족, 군진세력(軍鎭勢力) 출신의 호족, 해상세력(海上勢力) 출신의 호족, 촌주(村主) 출신의 호족을 들 수 있다.

### 1) 낙향귀족 출신의 호족

낙향귀족은 본래 중앙귀족이었으나 낙향하여 지방에 거주하면서 토착세력이 된 귀족을 지칭하며,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국가 정책에 따라 사민(徙民)된 낙향귀족이다. 중앙귀족으로서 지방에 사민되었다면, 그들은 당시 경주에서는 몰락한 귀족으로서, 권력에서 배제되었을 것이다. 사민되어 지방에 거주한 만큼, 그들을 낙향귀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는 진골귀족의 분지화(分枝化)와 자기도태의 과정에서 몰락한 낙향귀족이다. 이 경우가 보다 전형적인 낙향귀족이다.

국가의 사민조치에 의해서였건 진골귀족의 자기도태 현상에 의해서였건, 신라 하대에 이르러 낙향귀족은 5소경과 9주의 치소(治所)를 중심으로 한 지방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 이러한 낙향귀족은 그곳 지방사회에 정착하여 거주하면서 토착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지세력이 되었다. 이들은 신라 말의 혼란기에 호족으로 대두하였다. 그리하여 5소경과 9주의 치소는 신라 말 고려 초에는 대체로 유력한 호족의 거점으로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예는 청주(서원소경)·충주(중원소경)와 명주(溟州)이다.

청주는 신라 말 고려 초에 여러 호족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 청주지역에는 김씨(金氏)를 비롯하여 손씨(孫氏)·경씨(慶氏)·한씨(韓氏) 등의 호족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서 김씨 일족은 청주호족의 대표적 존재였다. 청주 김씨는 청주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강력한 호족세력이었다.

충주도 낙향귀족이 호족세력으로 등장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충주지역의 대표적인 성씨는 유씨(劉氏), 김씨(金氏), 박씨(朴氏), 최씨(崔氏), 장씨(張氏)로 나타난다. 이들 성씨가 충주지역을 지배하는 유력한 호족들이었다고 이해된다. 이 가운데 유씨집단이 가장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즉, 유긍달(劉兢達)은 왕건의 제3비인 신명순성(神明順成)왕후의 아버지로서, 그의 딸을 고려 건국 후 제일 먼저 왕비로 납비할 정도로 크게 활약한 호족이었다.

명주는 주의 치소로서 낙향귀족이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김주원(金周元)계 후손들이 호족으로 등장하여 막강한 세력을 과시하였다. 김주원은 중앙의 왕위계승전에서 패배하여 자신의 연고지인 명주로 퇴거하여 지방세력이 되었다.